

셀예배 교안

열왕기상 13:12 | 말씀이 사건이 되다 (4) - 다른 길

다함교회 | 열왕기상 강해 17 | 진행 시간 약 70분

인도자 준비 안내

- 이번 과의 열쇠는 “다른 길”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 다른 길로 떠난 사람이, 결국 그 길 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며 나누어 주십시오.
- 이 본문을 “그러니까 순종 잘하자”는 교훈으로 끝내면 율법적 부담만 남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복음의 자리, 곧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데려가 주십시오.
- “왜 속인 사람은 살고 속은 사람은 죽습니까?”라는 질문은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경의 관심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에 있음을 짚어 주십시오.
- 나눔이 특정 인물이나 교회를 겨냥한 비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높은 선지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 적용 단계에서 지나치게 사소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결단이 나오면, 이번 주 안에 확인 가능한 한 가지로 좁혀 주십시오.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A4 백지(각 1장, 마지막 적용 활동용).

셀예배 순서

- 찬송 —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5분)
- 여는 기도 — 인도자
- 마음 열기 나눔 (10분)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3:11-32 (5분)
- 본문 해설 (15분)
- 나눔 질문 (25분)

- 7. 적용 활동 — “다른 길 결단문” (5분)
- 8. 합심 기도 및 마무리 (5분)
- 9. 결단 찬송 —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여는 기도 (인도자)

길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되돌아가던 옛 길에서 발을 떼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걸으신 그 다른 길로 저희 발을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마음 열기 (10분)

아래 질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 돌아가며 짧게 나눕니다.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 길을 잘못 들어 크게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 길로 갔습니까?
- 누군가의 조언을 따랐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 조언을 믿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이건 좀 아닌데” 싶었는데도 익숙해져서 그냥 넘어간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3장 11-32절을 한두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읽는 동안 “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각자 세어 보게 하십시오.

3. 본문 해설 (15분)

■ 지난주 본문 요약 (13:1-10)

여로보암은 벧엘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 제단을 향해 삼백 년 후 요시아 왕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 하나님의 세 가지 금령 (9절)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히브리 문화에서 한 상에서 떡을

때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언약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우상숭배 체제와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단절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그는 다른 길로 갑니다. 이 “다른 길”이 본문 전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갔던 길을 되밟지 않는 사람입니다.

(2) 벤엘에 살던 늙은 선지자 (11절)

벤엘은 우상숭배의 본산인데, 그곳에 선지자가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외쳤는데, 정작 그 동네 선지자는 침묵했습니다.

대놓고 배교하지 않아도,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금송아지가 매일 보이는 자리에 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벤엘의 선지자였습니다.

(3) 여호와와 이름을 빌린 거짓말 (18절)

늙은 선지자는 두 가지로 설득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동류의식,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이라는 권위의 도용입니다. 성경은 곧바로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돈과 권력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의 말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하필 천사를 예로 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정리

가장 위험한 유혹은 세상의 얼굴이 아니라 신앙의 얼굴로 옵니다. 말씀의 기준은 말하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자체입니다.

(4) 사자가 지킨 시체 (24절)

사자가 먹지 않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셋이 길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연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집행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의 말씀이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20절). 말씀은 사람의 자격에 매이지 않습니다.

(5) “오호라 내 형제여” — 돌이킴 (30-32절)

늙은 선지자는 통곡하고, 자기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유언합니다. 어디에 묻히느냐는 내가 누구 편이였는지에 대한 최종 선언입니다. 평생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여호와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삼백 년 뒤 요시야가 베엘의 무덤들을 파헤칠 때, 그 두 사람의 뼈만 보존됩니다(왕하 23:16-18).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사람 곁에 누웠다는 이유 하나로 심판의 불을 면한 것입니다.

(6) 복음으로 읽기 - 기꺼이 속아 주신 분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긴장이 풀린 상수리나무 아래서 피로와 안일함에 젖고, 선배의 종교적 권위에 맹신했으며, 자신의 허기진 욕망과 결탁한 거짓 음성 속에 속아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의 뼈아픈 실패와 비극적 죽음마저도 헛되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평생 우상의 도시에서 침묵하던 늙은 선지자의 영혼을 깨뜨려 돌이키게 했고, 그의 무덤이 삼백 년 뒤 요시야의 개혁 때 쏟아진 무서운 심판의 불길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뼈를 보존하는 은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실패한 연약한 선지자의 그림자를 넘어, 우리에게 참되신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길에서 죽어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전을 향해 참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탄의 어떤 꾀계와 거짓에도 속지 않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성문 밖 십자가 길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바로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 대신 죽어 주셔야만 돌아옵니다.

4. 나눔 질문 (25분)

※ 관찰 → 해석 → 적용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루려 하지 마시고 셀의 상황에 맞게 서너 개를 선택하십시오.

① 관찰 — 세 가지 금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금령은 무엇입니까? 그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② 관찰 — 두 가지 설득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할 때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였습니까(18절)?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청은 거절했는데 늙은 선지자의 초청은 왜 받아들였을까요?

③ 해석 — 속인 사람은 살고 속은 사람은 죽다

속인 사람은 살고 속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④ 해석 — 거짓말한 입에 임한 말씀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에게 참된 말씀이 임한 것(2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또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는 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⑤ 적용 — 왔던 길과 지금 앓은 식탁

내 삶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신앙 고백과 실제 노선이 어긋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⑥ 적용 — 무뎠진 자리와 검증하지 않은 음성

최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이라면 마음이 찢렸을 텐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진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5. 적용 활동 — “다른 길 결단문” (5분)

나누어 준 백지에 아래 문장을 적고 빈칸을 채운 뒤, 한 사람씩 소리 내어 고백합니다.

■ 결단문

“저는 이번 한 주간, _____ 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먼저 걸으신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작성한 종이는 성경 사이에 끼워 두고 주중에 한 번 꺼내어 확인합니다. 인도자는 각자의 고백을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주 셀모임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결단은 확인될 때 습관이 됩니다.

6. 합심 기도 제목

- 분별의 은혜 —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그럴듯한 음성 앞에서 성경을 기준 삼아 시험하게 하소서.
- 깨어남의 은혜 — 익숙해져 감각을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지금 돌이킬 용기를 주소서.

- 동행의 은혜 — 우리 셀 공동체가 서로의 길을 물어봐 주고 붙들어 주는 형제가 되게 하소서.

7. 인도자 마무리 기도

길이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저희는 길 위에서 죽은 한 사람과, 그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왕의 돈과 권력은 이기고도 신앙의 얼굴을 한 말 앞에서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벤엘에 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던 선지자처럼, 저희도 익숙해져 감각을 잃은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몇 년 전이라면 찢렸을 일에 무뎠던 저희 마음을 다시 깨워 주시고, 오늘 돌이킬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성문 밖 길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으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먼저 걸으신 다른 길로 걷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과 다함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교회 셀예배 교안 · 열왕기상 강해 17 · 왕상 13:12